

합성섬유를 원료로 한 스웨드

가을은 두터운 멋내기가 즐거운 계절이다. 모스그린이나 어스칼라의 스웨드 클로스라던가 벨로아를 티가 없이 패셔너블하게 입고 있는 여성을 보면 반짝 빛나는 센스감을 느낀다.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스웨드 클로스나 벨로아 등의 원단의 표면에 모우가 있는 소재(유모소재)웨어에 인기가 올라간다. 그러한 배경도 있고 등장한 것이 X단면이라던가 핀 구조를 한 폴리에스터 합섬사이다. 핀구조라 함은 섬유의 단면을 수평타, 결국 +문자와 같은 형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에 의하여 둥근 단면의 실과는 달리 한 올의 실이면서도 +자와 같이 사방으로 가지가 있어 지탱하는 힘이 늘어나서 둥근 단면의 3배이상의 굽힘 강성을 실현하였다. 털이 눌러져도 눅지 않고 또 굽혀도 털이 바로 설 수 있다.

그 때문에 우수한 입모성과 반발성, 후쿠라미감 등의 특성을 가진 것이 만들어졌다. 극세섬유를 사용한 통상의 유모소재는 섬유 그 자체에 고시나 강도가 없기 때문에 천의 표면의 털이 아름답게 가지런히 깎기도 하고 기모가 공이 행해지기도 한다.

기모라 함은 직물의 표면을 굽어 잔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단의 두께가 증가하고 피부 촉감이 좋게 되고 보온성도 증가하는 것이다. 잔털을 세운 후에는 길이를 정비하여 아름답게 정돈한다. 한편 핀구조를 가진 폴리에스터 합섬사를 사용한 경우는 기모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섬유가 굽은 핀구조사으로써 텍스타일로 편성한 것인데 그 후 염색, 마무리 등의 몇 가공 단계에서 합섬(섬유의 단면 형상이 분할)하기 때문에 기모가 쉽고 극세 터치의 소프트하고 섬세한 표면감이 얻어진다.

벨로아에서는 파일의 끝부분이 섬세하게 합섬되어도 뿌리 쪽이 합섬되지 않기 때문에 낭창낭창한 표면감을 가지면서 후쿠라미감이라던가 드레이프성도 우수한 것이 만들어진다.

스웨이드에는 천연의 다시 말하여 동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원료로 하는 것과 인조의 합성섬유를 원료로 한 것이 있다. 천연의 스웨드는 이혁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가죽의 이면을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기모시켜 부드러운 비로드와 같게 한 것이다. 모우를 일으킨 곳을 손가락으로 대보면 댄 곳의 모우 상태는 누워버리는 흔적이 남는다. 인공 스웨드의 천연 다음을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것이 있다. (이러한 흔적이 전면을 쓰다듬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프 스웨드는 양가죽을 사용한 것으로 소가죽보다 부드러우나 튼튼하지 못하다. 원피는 울과 마찬가지로 수입된다. 다만 울을 채취하는 양의 가죽은 아니다

팩카리라고 하는 돼지 스웨드는 시프 스웨드보다도 튼튼하다. 그러한 면을 잘 관찰하면 가는 구멍이 있어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털구멍이다. 다시 자세히 보면 그러한 면은 주름과 털구멍이 있는 돼지 가죽의 특유한 표정을 하고 있다. 돼지 스웨드의 가격은 극히 값싸기 때문에 저가품의 옷의 대부분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벨루어는 모우가 스웨드보다도 성길고 길다.

소가죽은 2~3년 이상의 살이 두터운 소가죽의 안쪽을 기모시킨 것이다. 床 벨루어는 床革(가죽을 2장으로 깎아 낸 가죽의 표면이 없는 쪽 부분)의 이면을 기모한 것으로 상품가치는 낮다. 그런데 스웨드에 곰팡이가 생기는 일은 금물이다. 곰팡이가 생기면 제거하기 어렵고 그 부분이 변색하는데 변색한 부분을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린 소, 산양, 양, 돼지 등의 가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스웨드의 산뜻한 촉감은 우수하다. 만진 곳의 잔털이 눕혀져 생기는 음영도 매력이 있다. 그러나 색이 바래는 것도 있고 또 물에 젖으면 태가 딱딱하게 되기도 하고 변형하기 쉽게 된다. 수세할 수 없고 열수에 줄어들며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열룩은 없앨 수가 없다. 염색견뢰도가 나쁘기 때문에 색상

이 바래기 쉽고 아름다운 색상을 얻을 수 없다. 습열에 의하여 열화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어려우며 재단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로스가 많이 발생하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앞판, 등판 등을 쉽게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가격이 상승한다. 천연의 스웨드를 앞판 등판 등을 쉽게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가격이 상승한다. 천연의 스웨드를 사용한 옷은 오염이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입은 후에는 곧바로 솔질 등을 하여 붙은 머지 등을 털어 낸다던가 단춧구멍이 있는 곳이나 소매부리의 오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심하게 오염된 스웨드를 입고 다니는 것은 착용자의 센스를 의심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점을 해소한 것이 인공스웨드이다. 그 중의 하나가 폴리에스터 극세섬유로써 부직포를 만들어 우레탄 수지에 함침한 후 기모를 실시하던가 폴리에스터와 나일론과의 복합섬유로 만든 실을 사용하여 제직 또는 편성하여 우레탄 수지를 도포한 후에 기모시킨다던가 해도사 등의 초극세사를 사용하여 제직, 기모하여 스웨드조의 원단을 만들고 있다.

마이크로 스웨드 제품이 최근 경쟁적인 생산증가로 출혈수출 조짐을 보이지 업계는 제값받기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스웨드 제품은 스판벨트의 후속제품으로 계속적인 수요증가추세로 경기불황을 타개하는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마저 경쟁적인 수출가격인하로 제품가격이 원가이하로 떨어지면 트리코트업계는 공멸하고 말 거이라는 지적이다.

스판벨트의 경우 상품개발 초기 야드 당 5달러를 넘게 받던 것을 국내 업체간 가격경쟁으로 최근에는 1달러 초반까지 떨어져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이 형성되어 트리코트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상품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스웨드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경

기불황을 타개하는데 효자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또다시 과잉생산과 가격인하 경쟁이 나타날 조짐이 있어 관련 업계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업체는 가격인하를 위해 중량 빼먹기까지 일삼아 품질을 떨어트려 제품의 수명단축을 재촉하는 일까지 발생,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스웨드 제품은 트리코트업계에서 3년전부터 개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는데 기존의 세무가죽제품과 천연가죽 무스탕 대체소재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천연무스탕가죽보다 저렴하고 동물보호차원에서 환경보호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천연가죽을 대체할 아이템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부직포 스웨드 제품이 야드당 15달러하던 것을 대체한 제품이기 때문에 야드당 5달러 이상을 받아도 무난한 것이 트리코트 스웨드 제품이다. 스웨드 제품은 초기에는 이태리에서 수요가 발생했으며 점차 유럽과 미국으로 확대되면서 코트, 쇼파, 여성의류 등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업계가 제품관리를 잘하면 지속적으로 윤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업계의 수요관리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